어~ 익숙한 이 목소리는?

인기 연예인 애니 더빙 붐

애니메이션 영화 '슈렉'은 기존 동화를 비튼 줄거리도 재미있지만 캐릭터와 딱 맞는 배역을 맡은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를 보는 재미도 그만이다.

약간은 거만한 듯 사랑스러운 피오나 공주 역의 카메론 디아즈나 쉴새 없이 떠들어 대는 떠벌이 당나귀 동키 역을 맡은 에디 머피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다.

최근 극장에 걸리는 한국 애니메이션에도 인기 연예인들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 일부 외국 애니메이션의 경우 원어판 보다 한국어 더빙판을 더 많이 극장에 거는 등 '목소리 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개봉한 판타지 애니메이션 '천년여우 여우비'(이하 천년여우)에는 손예진·공형진·류덕환 등 유명 배우들이 대거 참여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구미호'를 소재로 만든 '천년여우'는 사람이 되기 싫어하는 말썽꾸러기 구미호 소녀 여우비가 소년 황금이와 만나면서 겪는

'천년여우' '아치와 씨팍' 등 손예진·류승범·보아 참여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물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여우비' 역을 맡은 손예진은 목소리 연기가 처음이었지만 때론 터프하고, 때론 앙증맞게 재현해 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저게 손예진 목소리 맞나' 싶을 정도로 색다른 연기를 펼쳐 재미를 준다.

그밖에 남자 주인공 황금이 역은 '웰컴 투 동막골' '천하장사 마돈나' 등에 출연한 류덕환이 맡았으며 두 사람을 보살펴주는 강선생 역은 공형진이 연기했다.

'천년 여우'는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영화제인 안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마리이야기'로 대상을 받은 이성강 감독의 작품으로 재일교포 음악가 양방언이 영화음악을 맡아 환상적인 음악을 선보인다.

지난해 개봉된 영화 '아치와 씨팍'은 영화 흥행과는 별도로 배우의 이미지와 맡는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던 작품. 제목에서 풍기듯 지극히 불량스러운 18세 관람가 영화였던 이 작품의 주인공인 아치와 씨팍 역할은 류승범과 임창정이 맡았으며 '코맹맹이 소리'로 애교를 떠는 이쁜이 역으로는 현영이 출연했다.

외국 애니메이션은 최근 점점 한국어 더빙판을 늘리는 추세다. 특히 충무로 최고 연기파 배우로 꼽히는 송강호가 출연했던 '마다가스카'의 성공 이후

'여우비'

스타들의 애니 더빙은 가속도가 붙은 상태. 외국 배우들 역시 마찬가지여서 '헷지'의 브루스 윌리스, '플러쉬'의 휴 잭맨 등 할리우드 스타들의 목소리 연기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천년여우 여우비'에서 주인공 여우비 목소리를 연기한 손예진.

'아치와 씨팍'에서 '씨팍'역의 임창정(왼쪽)과 아치역의 류승범.

'헷지' 주인공 '번'역의 신동엽(왼쪽)과 '헤더'역의 보아.

'빨간 모자의 진실'의 김수미(왼쪽), 강혜정.

외국 애니 한국어 더빙판 대세 호감 불구 연기력 저하 지적

100% 더빙판을 극장에 걸어 흥행에 성공한 '빨간 모자의 진실'에는 캐릭터와 어울리는 빨간모자 역의 강혜정을 비롯, 김수미·노홍철·임하룡 등이 호흡을 맞췄고 '플러쉬'에는 아예 영화 '투사부일체'의 주인공인 정준호·정웅인·김상경·정운택이 단체로 출연하기도 했다.

그밖에 배우 황정민과 신동엽·보아는 '헷지'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으며 SS501과 임채무는 '파이스토리'에 출연했다.

스타들의 목소리 연기는 관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부 출연자들은 전문 성우들에 비해 연기력이 현저히 떨어져 오히려 극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 흥행 위주가 아닌, 캐릭터에 적합한 목소리의 스타를 기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러브 메이커'

스페인 영화로의 초대

2월2일~5일까지 광주극장서 '스페인 영화제'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스페인 영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시네마테크 '영화로 세상보기'는 2월2일~5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스페인 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스페인 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후안 안토니오 바르뎀의 작품 가운데 장난스럽게 시작한 사랑의 아픈 결말을 그린 '러브 메이커'와 네덜란드 화가 베르메르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화면 속에 아버지의 여자를 찾아 떠나는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빅토르 에리세 감독의 '남쪽'이 상영된다.

또 부르주아와 종교의 위선을 비판해온 루이스 부뉴엘 감독의 '절멸의 천사'와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 프라시스코 고양의 전기 영화인 카를로스 사우라의 '보르도의 고야'가 관객들을 만난다.

관람료는 1편 6천원, 전편 관람 2만원이며 시간표는 광주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휘황찬란 궁·금빛 의상 볼거리

주목! 이 영화 황후花

'영웅' '연인'에 이어 장이모 감독이 또 다시 메가폰을 잡은 무협물로 할리우드까지 장악한 배우 공리가 자신을 발탁했던 장이모와 11년만에 다시 손잡은 작품이다.

중국 영화 사상 최고의 제작비인 450억원을 들인 '황후花'는 휘황찬란하게 번쩍이는 궁의 모습과 수만 개의 노란 국화꽃으로 메워진 황실 앞마당, 황제와 황후의 금빛 찬란한 의복, 금빛 갑옷의 반란군과 은빛 갑옷의 황실군대 등 화려한 볼거리가 화면을 압도한다.

황제 일족의 권력 싸움과 함께 전처의 소생인 큰아들과 은밀하게 정을 통하는 황후 등 황실의 은밀한 사랑이야기까지 그리고 있으며 주윤발, 주걸륜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중국 당나라 말기, 황제는 중양절 축제를 앞두고 변방에 있던 둘째 아들 원걸과 함께 궁으로 돌아온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황제와 황후, 그리고 세 왕자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 마침내 다가온 중양절. 웅장한 축제 분위기 속에 국화를 가슴에 새긴 10만 대군이 궁을 향해 돌진하는데….〈18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황후花 당나라 말기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궁중의 암투와 사랑이야기. 장예모 감독, 공리, 주윤발 주연. 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스타박스, 씨너스 전대, 하미
미스포터 동화 '피터 래빗'으로 유명한 베아트릭스 포터의 삶과 사랑을 다룬 영화로 르네 젤위거가 주연을 맡았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스타박스, 씨너스 전대, 하미
로보트 태권 V 30년만에 다시 찾아온 한국의 대표 애니메이션으로 디지털로 완벽 복원됐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스타박스
마파도 2 3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화제를 모았던 '마파도'의 속편. 여운계·김을동·이문식 등이 주연을 맡았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스타박스, 씨너스 전대, 하미
허브 몸은 스무살이지만 정신 연령은 일곱살인 상은의 성장기. 배종옥·강혜정이 주연을 맡았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프리머스 제일, 스타박스
미녀는 괴로워 전신 성형수술로 S라인의 미녀로 탄생한 여주인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일본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했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프리머스 제일, 스타박스
최강 로맨스 여기자와 형사의 좌충우돌 사랑이야기로 현영과 이동욱이 주연을 맡았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스타박스, 씨너스 전대, 하미
에라곤 한 소년이 사악한 왕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내용을 그린 판타지 대작.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스타박스
블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벌이는 영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열연이 돋보인다. 18세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스타박스, 하미, 프리머스 제일
박물관이 살아있다 밤이면 전시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에 취업한 경비원의 모험기. 전체 관람가.	롯데(첨단),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데자뷰 덴젤 워싱턴, 토니 스콧 감독이 호흡을 맞춘 액션 스리러물. 12세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하미, 스타박스
데스노트-라스트 네임 동명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12세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하미, 스타박스.